

# 대림 제1 주일

기도서 206면 (가해)  
 제 1 독서 : 이사 2, 1-5  
 제 2 독서 : 로마 13, 11-14a  
 복 음 : 마태 24, 37-44

# 순정이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오 2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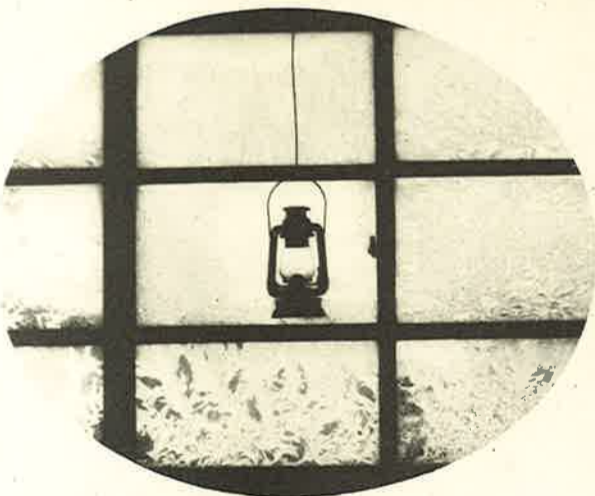
# 사람으로 오시는 하느님

또 다시 대림절을 맞을 제 컷 전을 때리는 것은 지난번 세계성체대회에 즈음하여 서울가톨릭대학이 세계적인 신학자 발터 카스퍼 주교님을 초빙하여 열리게 된 국제학술대회 “2000년대의 교회”에서 국내의 어느 소장 신학자 신부님이 열을려 청중에게 쏟아 내던 소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식사이며 이를 거행하는 교회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 오시는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대신 스스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망상에 젖은 한국교회에 울리는 이 경종이 저에게는 마치 2천년 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하느님은 홀로 고고히 계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것도 하느님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 믿음에 걸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고 권고합니다. 사는 길을 야훼님께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자.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은 오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오십니다. 우리가 대낮에 사는 현실이 아니라 밤에 해메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십니다.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감옷을 입자”고 권고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하느님이요, ‘사람으로 오시는’ 하느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리치고 새벽을 여시는 하느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믿음의 행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림

“예수님은 어둠을 몰리치고 새벽을 여시는 하느님입니다”



절에 전례적으로 다시 오실 뿐 아니라 우리 한사람 한사람에게 실존적으로 다시 오시고 인류 전체에게 결정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라면 그분은 ‘도둑’처럼 오시고, 우리가 예수 성탄 때의 목동들이라면 그분은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는 사람의 아들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승현 신부  
 (교황청전교원조회 한국지부 총무)

## 여명

# 새로운 지평에로의 출발점

그처럼 위대했던 한해도 황혼과 함께 막을 내리고 님을 맞으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무한한 포용과 신비의 품 안에 안기고저 간구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지평에로의 출발점, 땅 위에 모든, 도시의 한복판에, 풍년이 가져다 주는 파동의 농촌들녘에 뜨거운 정치집회장에, 교회 안에서 정갈한 기도로 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과 믿음을 되새김하며 원초적인 생명에로의 회귀를 오늘,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금 상기합니다.



장화자

희망 속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날과 그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다고 꼭 24시간 동안 계속 깨어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가르침은 단일한 삶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어둡고 쓸쓸한 저녁나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님, 우리는 마치 영원토록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극히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손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갖추어 놓고 즉시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일상의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월의 바람앞에 방향을 잃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믿음생활의 위기,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

야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고통을 참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우리 배운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깨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사실 언제라도 오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 소홀히 하거나 생활의 짐을 회할 수 없습니다. 님을 뵈고자 할 갈망으로 더욱 비워지는 투명기도, 보석으로 다듬으며 하나 가슴에 쌓을 수 있는 절호의 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리를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게 주시고 또 신앙이라는 그분의 물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생활하게 해준 데 대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는 님 통하여 인류의 유한한 삶이 영으로 이어지는 길을 터득하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잠들어 있고 천사들만 래할 뿐입니다. 하느님께 영광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화, 하느님께서 실현하시려는 화의 나라를 위하여 어정쩡한 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모든 과 탐욕을 버리고 새생명의 의을 감지(感知)하는 은혜로운 날을 만듭시다.  
 오로지 님에게 안길 수 있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어 기도하며 죽을 수 밖에 없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약속 주시려고 오시는 님의 말씀에 를 기우려 보아야했습니다.

#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계시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아들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스승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와 세상의 중심이시요,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삶의 동반자요,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고통과 희망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야 하고 언젠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존재의 영원한 충만, 우리행복을 그분에게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과 진리이시며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교황 바오로 6 세)



### 신자들의 소리

때로는 경외스러운 시선으로, 때로는 두터운 담벽 안의 감추어진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때로는 감히 접근해 볼 엄두조차 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가슴을 옥죄어 오는 듯한 답답함으로, 때로는 해묵은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유럽풍의 고전적 양식으로, 때로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경건함으로, 때로는 사나운 기운으로 거대한 풍차에 돌진해 가는 기사도वाद 같은 모습으로, 세계 드리워진 휘장 안쪽의 신비

를 내는 투로 따져 물어 아예 말문을 막아버릴 망정 차분 차분한 말솜씨로 천주교회를 설명해 내기에는 아직 신앙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음을 자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가슴을 포근하게 하는 안정감과 예측되는 불행에 대해 괜히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심리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안도감, 그리고 인생의 참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 같은 희열감과 주님으로부터 가장 신뢰 받는 교회일거라고 여겨지는 자부심. 그리고 혼탁한 세상 풍기로부터 벗어나 잠깐씩이나마 신선한 한모금의 참공기를 호흡해 볼 수 있다는 청량감이랄까, 한손에는 정의의 불을 밝히는

### 내 영혼의 요람이 된 천주교회

스러움만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던 천주교회에 슬그머니 나의 영혼과 마음을 들여다본 이후로, 무언지 모르든 미사의식에 무작정 내 마음을 꿰매주어 가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적 신앙을 씌워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여정 중에서는 꽤나 진지하게, 입교후 10여년의 시간을 보내 왔었다. 지금도 친구들과 어울어진 자리에서 약간은 비양거리는 어조로 "말하러 천주교회에는 댁기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적당히 대답거리다가 화제를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상대방을 경멸해 주거나 고도 아니면 네가 그렇게 묻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못 화

들고, 또 한손으로는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치마폭을 곱게 접어 올리는 여신상을 대하는 것과 같은 엄숙함, 오염된 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부터의 해방감, 하느님은 진정 광란스러운 몸짓으로 자신만의 축복을 구하는 아우성보다는 조용한 묵상중에서 세상 모든 이들의 평화를 간구하는 모습을 더욱 기뻐해 주시리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천주교인이 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더욱 깊숙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 고자 한다.

강헌희 / 예로니모 (부안성당, 부안교 교사)

### 알고 봅시다

### 「분노의 포도」

#### ■ 영화상형

감독 : John Ford  
 흑백, 127분 오스카상  
 대상 : 청년~성인 감상용(어린이는 오지 마세요.)

존 스타인 벡의 작품을 영화화한 것으로, 오클라호마의 불모의 땅에 있는 자작 농장에서 쫓겨나 서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속된 땅으로 낡은 포드차를 타고 떠나는 이주민들의 이픔을 다룬 작품. 방랑벽있는 아들 헬리폰다와 의지의 어머니 제인 다웰의 연기가 가슴을 메이게 한다.

영화상영일자 : 12월4일(월)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저녁7시  
 관람료 : 1,000원

### 원고를 기다립니다.

매달 첫주에 만들어지는 큰 주보 숲정이에 실릴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이야기나, 체험담, 교회에 하고싶은 바램이나,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점까지도 기탄없이 써보내주시면 교회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침판 등에 실릴 원고 : 3~4매 내외  
 체험담 : 5매 내외  
 기 타 : 3~4매 내외  
 보내실 곳 : 52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가톨릭문화강좌

주 제 : 체험적 신앙생활이야기

연 사 : 詩人 구상선생님

일 시 : 1989. 12. 9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 가톨릭센터강당

티 켓 : 1,000원

구입처 : 성바오로서원  
 가톨릭센터 안내실

### 학생 모집 요강

가톨릭 교리신학원 병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부

#### ■ 신 구약성서 입문과정

1. 내용 : 신구약성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2년 과정
2. 자격 : 고졸정도의 학력소유자(교과초월)
3. 구비서류 :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 : 90년 1월~2월7일까지 원서대 : 3,000원

#### ■ 신 구약성서 중급과정

1. 내용 : 성서입문의 바탕 위에서 보다 성서신학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해독하도록 이끌어주는 4년 과정
2. 자격 : 본 교육부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 ■ 바울영성사상과정

1. 자격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단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예외)
2. 문의처 : 132-104 서울시 도봉구 미야4동 103번지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전화(02-984-1611~4)
3. 원서구입처 : 전주 성바오로서원 3-3398

### 정음·김제지구 본당소식

**고창** 사제관 63-2552 주임신부 김 진 화  
 사무실 2-2044 사목회장 이 면 우  
 수녀원 2-3529

대림시기입니다.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합니다.  
 ○ 일 : 사목회(6일) 다음주-성모회  
 사목회 각본과 제단체 : 1990년 행사계획서 제출바람  
 판공성사 : 3일-동해원 6일-신광 7일-안현 9일-용반 10일-심원  
 불우이웃돕기 성미 성금 운동 : 많이 참여하여 도움입니다.  
 감사 : 본당주보출일 행사 연도대회 은총시장에 협조 수고하신 분  
 공소미사 : 동해원 다음주-심원  
 금주전례 : 해설-조경숙 독서와봉헌-이민태 이경자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기4 독서와봉헌-은희출 박진아부부  
 지난주봉헌금 : 254,920원 □ 교무금 : 240,000원

**부안** 사제관 83-3435 주임신부 안 철 문  
 사무실 2-2232 사목회장 육 진 수  
 수·유 2-3226

사목회 : 12월5일 저녁8시 전원 참석바람 2. 구역장·구역회 : 12월6일 10:30 구역장회의 밤 7시30분 구역회  
 공소판공 일정 : 5일-돈지(10:00), 광복(14:00) 6일-마포(10:00), 청호(14:00) 7일-덕림(10:00), 줄포(14:00) 8일-백산(10:00), 만석(14:00), 신복(17:00) 13일-동용(14:00)  
 4. 예비집중교리 : 12월 12일부터 실시합니다.  
 5일-8일 미사는 아침미사입니다. (6시)  
 사목회 임원 : 회장-양용상 남부회장-조건규 여부회장-김부미자 총무-조덕연 선교부장-장철수 차장-박경식 전례부장-신영근 차장-김종선 재정부장-최종옥 차장-김갑철 교육부장-천태수 차장-주판식 홍보부장-강현희 차장-임병설 청소년부장-박영래 차장-김상훈 사회복지부장-이병근 차장-문경래 애령부장-배복래 차장-박해산 여성부장-이남순 차장-송옥준 구역부장-김효락 차장-이옥설  
 꾸리아년차총회 : 12월10일  
 지난주봉헌금 : 316,270원 □ 교무금 : 1,031,000원

**수류** 사제관 44-0581 주임신부 문 선 구  
 사무실 43-0581 사목회장 김 태 섭  
 수녀원

묵주기도 100만단 불헌 : · 지난주묵주기도 25,300단 · 합계 477,421단  
 ○ 오늘 대림제1주일입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도록 노력합니다.  
 감사 : 추수감사미사에 예뻐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의 모임 : 성모회-공식미사후 교육관에서  
 ○ 다음주 모임 : 모니카회-공식미사후  
 성당침소 : 금주-치명자의 모후Pr. 다음주-죄인의 의탁Pr.  
 가정방문일정 : 4일-평지1,2반 5일-평지2,3반 6일-울치 7일-복호  
 지난주봉헌금 : 126,480원 □ 교무금 : 296,700원

**\*시기동** 사제관 32-3282 주임신부 김 진 석  
 사무실 2-2169 사목회장 김 동 필  
 수녀원 33-9219  
 유치원 32-5777

1. 오늘부터 가해시작 대림1주일 전례상 90년도 시작입니다.
  2. 안나회·매피회 : 공식미사후
  3. 꾸리아 회합 : 공식미사후, 레지오 간부님을 참석하세요.
  4. 구역장님께 : 미사후 12월달 반교재 수령바람
  5. 돈보스교회 : 오늘 저녁미사후
  6. 나래회합 : 5일(화) 오전11시
  7. 공소가톨릭 : 5일(화) 오전10시 축림, 6일(수) 오전10시 신성, 7일(목) 오전10시 동천, 8일(금) 오후2시 교양, ①애령회비 납부 ②교무금 완납
  8. 교육관 신학원금 수입 : 속히 수입합니다.
  9. 성당침소 : 월-천상의 모후, 토-순결하신 동정녀
- 지난주봉헌금 : 452,850원 □ 교무금 : 1,227,900원

**\*신태인** 사제관 4-2444 주임신부 유 장 훈  
 사무실 4-2024 사목회장 송 대 영

1. 본당가정방문 : 남계, 인교동(12월5일) 신시, 중앙동, 남동(12월6일)
  2. 본당판공성사(17일~23일) : 판공성사는 미사 전후를 이용하시기 바람에 새대주는 교무금 신청서를 성사전까지 신부님께 직접 드리고 면담하시기 바람. 3. 공소 판공성사 : 용암공소(3일 1시 30분), 능교공소(3일 4시) 옥단공소(7일 4시) 신기공소(10일 3시) 산의공소(신설, 12월 10시) 태인공소(14일 4시) 진흥공소(16일 4시) 동막공소(17일 3시)
  4. 12월 8일은 "본당 주보출일"입니다. 저녁7시 미사에 많이 참석합니다. 5. 꾸리아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6. 대건회 부부회 : 9일-10일 장소-천호회정의 집 7. 차주모임 : 명도회 8. 대건회 : 12월8일 오후7시 감사-능교공소 윤기남 공소난로기증(260,000원)
- 지난주봉헌금 : 244,600원 □ 교무금 : 1,083,400원

**\*신평** 사제관 44-2272 주임신부 이 설 우  
 사무실 44-2271 사목회장 김 진 태  
 수녀원 44-2273

- ※ 12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위문금품 수집하오니 많은 협조하여 일선장병과 이웃돕기에 합심합니다.
1. 오늘의 모임 : 사목회총회(임원전원, 공소회장, 구역장, 반장, 단장) 꼭 참여바람. 요셉회, 자모회, 청년회, 학생회
  2. 다음주 모임 : 방ziger삼회, 자모회
  3. 공소미사 : 오늘오후 3시-와룡공소, 다음주오후3시-신암공소
  4. 금주간행사 : 12. 6(수) 천미교사, 12. 8(금) 배소라성서강의, 12. 9(토) 유아세례(오후 3시30분)
  5. 다음주간행사 : 12. 13(수) 천교미사 및 나눔의 자리(준비는 8, 9 구역 합동으로)
  6. 금주독서 및 전례 : 독서, 셋별의 모후, 전례-순수상, 저녁-허정윤 차주독서 및 전례 : 독서-에덕의 모후, 전례-김찬인, 저녁-김미애
  7. 성당침소 : 금주-1구역, 다음주-2구역
- 지난주봉헌금 : 218,460원 □ 교무금 : 164,000원

**\*연지동** 사제관 33-0044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33-0898 사목회장 허 진  
 수녀원 33-2578

1.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 :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2. 오늘의 모임 : 아브라함회·매피회-공식미사후
  3. 다음주 모임 : 베드로회·바오로회·대전 안드레아회·원서회·성심회
  4. 울드레아 모임 : 4일(월) 저녁7시
  5. 구역모임 : 3·4구역-4일(월) 저녁7시30분 8·9·10구역-5(화) 저녁7시
  6. 축하 결혼 : 신랑-서준석군 신부-김성숙(파비올라)양 오늘12시
  7. 성당침소 : 월-인자하신 모후Pr. 토-능하신 동정녀Pr.
- 지난주봉헌금 : 334,350원 □ 교무금 : 772,000원

**\*요촌** 사제관 44-0152 주임신부 안 용 기  
 사무실 44-0151 사목회장 조 두 중  
 수녀원 44-0153

- ※ 오늘부터 전례력의 새해인 대림절이며 미사독서는 A해입니다.
1. 오늘의 모임 : 구역장·공소회장 연석회, 학생회
  2. 사목회 월례회 : 5일(화) 저녁7시
  3. 성가정월례회 : 8일(금) 오전 10시 30분
  4. 가정방문일정 : 5일(화) - 2구역 6일(수) - 6구역 7일(목) - 5구역 8일(금) - 4구역
  5. 성탄준비 연습 : 5일(화)부터 매주 화, 금요일 저녁7시30분 많은 협조와 관심 바랍니다.
  6. 89년도 밀린 교부금을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7. 이 달의 성당침소 : 순결하신 정녀, 요모한 매피Pr
- 지난주봉헌금 : 276,890원 □ 교무금 : 483,540원

**\*원평** 사제관 43-0880 주임신부 전 중 복  
 사무실 43-4236 사목회장 오 재 천  
 수녀원

- ※ 대림첫주일입니다. (다해를 보십시오)
1. 금주모임 : 사목회의
  2. 차주모임 : 성모회
  3. 성지개발현금 : 봉헌서 오늘까지 접수해주세요.
  4. 반모임 : 8일(금) 오후6시(지도자 모임) ; 오후8시(각반모임)
  5. 기원미사 : 다음주일(10일) 공식미사때 대입시험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지난주봉헌금 : 90,440원 □ 교무금 : 100,000원  
 □ 2차현금 : 25,930원 □ 미사예물 : 35,000원

# 선교사제 소식 (1)

## 페루

# 선교 3년

### “공소방문 갈때면 신부님 낙마하면 안된다고 죄뜨만 노새를 끌고 와 타고 가라고”

■ 페루선교사를 위한 사제단 합동미사  
■ 1989. 12. 11(월) 오후 7시 전주중앙성당

갈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페루서의 3년-1차 계약기간-을 내고 휴가차 귀국한 입장에서 루 선교 3년이라는 제목의 원부탁을 받고보니, 선교사라고 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했나하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지면이 어느 개인의 무용담이 자기를 선전하는 자리가 아님 알기에 그동안 살아온 원주민 목생활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어진 여백을 채울까 한다.

아마존 하면 우선 악어와 식인기 파라나가 서식하는 강과 세 산소의 1/3을 공급한다는 거 한 필립이 연상될 것이다. 그도 아니면, 왕년에 상영된 「아존의 여인들」이라는 영화를 떠올리며 혹은 반 별거승이에 독, 독화살을 들고 울창한 덩굴숲에 숨어서 백인 탐험대원을 노는 인디언들을 상상하면서 뭔가 마존의 신비함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엔 아마존 밀의 반나체 인디언들을 사목하거나 불안반 기대 반이었다. 허나 행인지 다행인지 나의 사목지는 데스 산맥의 한 지류에 자리잡 해발 1,940m의 롬비아라는 읍이었다. 주민수는 약 1,000, 공소 20개, 국민학교와 중학(5년제로서 한국 중·고등학교

과정) 각 1개, 주식은 소금, 식용유, 마늘짚은 것을 물과 함께 끓인 뒤 쌀을 넣어 약간 설익힌 그네들 식의 밥이지만 고산지대에서 화전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감자, 옥수수, 콩이므로 주식도 쌀보다는 감자, 옥수수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 듯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멕시코 수녀들이 7-8년 전부터 차차빠야사 교구청을 통해 지원되는 외국 구호양식(밀가루·식용유·가루우유·국수)을 가지고 극빈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안데스의 깊은 산중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모든면-경제, 문화, 정치, 교육, 종교-에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이곳의 문제-질병, 무지, 가난들은 한 사람의 선교사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커다란 문제인 것 같다. 영양부족으로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있고, 의약품, 의료진의 절

대부족으로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쉽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극도로 불편한 교통과 통신사정 때문에



교육수준의 퇴보와 문명으로 인한 사회문제(알콜중독, 미혼모, 도난, 자살 등등), 극소수 부자들의 생활로 현대문화생활은 알지만 가능성이 없는데서 오는 젊은이들이 자아포기적인 생활 또한 커

갈수록 낙후되거나 고사되어가는 마을의 현실은 가슴아프게 한다. 신앙생활 면에서도 오랜세월 동안 사제가 없던 관계로 매사에 미신적인 요소가 더 앞서려 한다. 혼배성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그래도 사제 생각해주는 정성은 껍이나 눈물겨울 정도이다. 자기들도 먹기 어려운 계란 한 두개를 꼬옥 품에 안고 가지고 온다든지, 산중 밭을 일구어 소출된 콩, 옥수수, 감자를 들고오는 정성은 우리 한국민의 인정처럼 극진하다. 공소방문 갈 때면 신부님 낙마하면 안된다고 죄뜨만 노새를 끌고와 타고가라고 권할 땐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래도 고맙게 올라타고 해발 3,000m까지 이곳 저곳 산속 깊이 숨은 공소들을 기쁘게 방문한다. 지난 3년동안 원주민들에게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생활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결국 3년이란 기간은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던듯 하다. 이제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주님께 맡기고 내년엔 한국 수녀님 두분이 선교를 위해 오신다니 보람있게 활동을 떠나갈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 우리 전주 교구 신자들의 기도와 격려를 청하고 싶다. 우리 교구, 아니 우리 선조 순교선열들이 물려주신 신앙을 지구받대면 페루, 아마존, 안데스의 오지에 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여보려다. 교구 여러분들의 기도가 뒤따라 줄 것을 재삼 청하면서.....

방의 성 신부/페루선교사

## 추계 사제총회 - 교구살림 어떻게?

1989년 추계 정기 사제 총회가 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까지 가톨릭 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회기도에 이어 김환철 구장 직무대행 신부님의 교구 정전반에 관한 보고와 치명자, 천호, 초남리, 서천교의 성지발 현황을 보고하고 각 본당 부님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리 각국 89년 업무 보고와 90년 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사목 국

1. 사목 교서 구현: 성체 신실 양을 위한 제반 교육, 성체대회 가현행, 한마음 한몸 운동 추진 행, 결과 보고

2. 반 모임 활성화: 한 본당 목의 성패는 바로 반 모임 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보다

세분화된 반 모임 운영을 장려.

3. 혼인강좌, 통신교리, 혼인법원, 교구 단위 세난제 운영, 기타 교도소 병원 사목에 관한 보고 및 계획, 90년도 교구단위 제반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 관리 국

● 90년도 인건비는 7~13% 선에서 본당 실정에 맞게 인상하며 상여금은 450% 가족 수당은 1인당 20,000원으로 인상.

● 성심 여중·고 치명자산 아래로 이전 성심학교 부지 5억 5천여만원에 양도

● 전동 상가 매각, 교구비 완납 촉구.

■ 교육 국

● 초·중·고 대학생 연합회 및 지도자 양성 보고및 계획. 초·

중·고 성체대회 결산보고, 제반 성소 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신학생 선발 및 관리에 깊은 관심을 요망했다.

■ 홍보 국

홍보 업무란 교회와 사회와의 만남의 장(場)을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 만남의 방법으로 대중 전달 매체(Mass Media)를 통한 만남과 문화 예술을 통한 만남으로 구별하였다. 따라서 방송 신문 등 홍보매체와 문화 행사에 활동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인력 지원이 요구되며 전문인 양성, 자체 방송국 설립, 자체 신문 발간 등이 요구된다고 보고.

### 기타 토의사항

1. 페루 선교사의 재 계약 문제는 새로운 주교님이 착작 하실 때까지 보류하고 일단 그 곳에서 봉사하시다가 휴가차 귀국한 김윤섭, 방 의성 두분 신부님을 위한 미사 및 2차헌금, 사제들의 지원 모금 운동을 의결하였다.
2. 감옥에 계신 박 병준, 문

규현 신부님을 위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3. 교구청사를 신축 할 것을 거론하기로 함의.

4. 성가 경연대회가 아닌 성가 발표회의 성격으로 추진 할 것을 건의하고 시골 본당을 위한 영화 상영을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숲 정 이 산책

전동이여 영원하라!

전주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삼희관광(주)**

당: 이 정 화 (울리안나)

해외여행 상담 및 문의  
화: (0652) 87-5532 (대표)  
치: 전주전신전화국 옆

이전개원

**김안과 의원**

● 이전장소: 전주시 서노송동 636-5 (중앙성당 옆 구. 박승창산부인과)  
● 전화: (0652) 74-0760 85-3020

※ 진료시간: 오전 9시 ~ 오후 8시  
원장 김효열 (해리교) 전문주 (베로니카)

김안과  
김안과  
김안과

성형외과 개설  
<교우우대>  
물리치료실

**서울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 학 박사 이상재

조 중 자 (베로니카)

전주시 덕진동 1401-19 (덕진광장앞)  
☎ 75-0550, 0551

솔미피정의 집

피정안내

피정제목: 성탄의 신비(성서)  
때: 1989. 12. 23(토) ~ 25(월)

대 상: 전주교 신자, 수도자 성직자  
비 용: 독방 30,000원, 2인공동방 24,000원  
강 사: 김정수바르나바신부  
신청접수: (0457) 362-5021-2

훨씬 얇고 가벼워진 초박형 렌즈

■ 140년 전통 서독 칼자이즈 특약점 (교우특별우대)

**정통 현대안경원**  
김문곤 (요셉)  
☎ 83-6644, 84-3744

■ 정통 이태리품 통가족패션의 성장  
● 아동화 ● 일반화 ● 케쥬얼 ● 약세사리

**카이저 전주점**  
전주우체국 현대안경원 옆  
☎ 83-0598



# 본당 사무장

## 22년 봉사

이경호  
바오로

어느 성당을 가든지, 사무실이 있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무장은 미신자거나 신자거나 성당을 찾는 사람이라면 가정 먼저 만나게 되는 성당의 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복자성당 이경호(바오로·57세)사무장. 그는 이명서 성인의 후손으로 자자 손손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은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났다. 큰 아버지가 사제였던 관계로(이종필·별세) 유달리 사제들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지극했다. 이경호씨에게 덕망있고 신앙심 깊은 자랑스런 부모가 있었으나 어머니는 6·25사변 당시 큰 아들이 신부가 됐다는 이유로 학살당했다. 조상들의 원고향은 경기도였지만 신앙 때문에 교우촌을 찾아 정착하게 된 곳이 되재 승치공소였다.

이경호 사무장의 형제는 6남 3녀. 그중 맏형이 신부(故 이상호 신부님)이고 여동생이 수녀인 성직자 가정이다. 구교우신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언제나 신앙으로 극복해온 가족들의 신심은 말할 수 없다. 그는 늦은 나이인 34세에 결혼, 슬하에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부인 송해(베로니카)씨는 언제나 적극적인 내조를 아끼지 않는다. 사무장으로 만 22년을 지내다 보니 그간 수많은 신자와 신부들을 만나게 됐다. 그동안 8명의 본당신부를 모셨고 그중 어느 분과도 마음상해 본일이 없단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의 차이가 다 있으시기에 언제나 자신의 부덕함 때문에 행여 신부님들께서 불편하셨거나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겸손해 하는李씨의 굳게 패인 주름진 얼굴이 펴어나 편안해 보인다.

아침 8시4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성당 구내의 정돈과 청소로 시작하는 하루 삶이 마냥 고맙고 감사하

기만 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 가까이에서 봉사하게 되고 매일미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기쁨 때문. 따라서 어려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무장을 천직으로 알고 봉사해왔다.

84년 수녀님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성당안에서 기거하며 수녀의 뒷까지 감당해 온李사무장. 그는 현재에 만족하며 산다. 또한 이해심 깊은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게 그의 바램이다.

## 행여 자신의 부덕함이 누(累)가 됐을지도……



## 요심이(852) 김병오

구속된신부님들은 언제 석방되나요? 1사람외는모금년안으로

그 이유는? 가뉘놓으면 우리도 부담스럽

또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으니가 석방한단 말이지요? 너 정말로 잘아는구나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들머리에 앉았다는 것을 알으시요!

益山郡龍安面安大洞성당은 1897년에 본당이 설립됐다.

전북지역 초기의 본당 또는 공소가 산골을 끼고 있는 데 비해 安大洞성당은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평야부의 초기본당이라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는 1958년에 신설된 威悅면 瓦里성당이 본당이 되어 있으나 이곳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전라도의 가톨릭 포교 사상 역사도 오래고 또 유서도



깊은 본당으로서 14대의 본당 주임을 맞이한 곳이 안대동 성당이다.

이곳도 역사를 더듬으면 파란이 많은 곳이다. 1876년경 리델李

주교가 체포되어 청국으로 추방될 때 불량 白신부가 피신경 전라도에 와서 처음은 용담의 양명리, 다음엔 장수정지터골, 큰골 등 산간벽지의 공소들을 순회 전교했다. 그 후 평야부인 함열의 다리실로 와서 「요왕골」(안대동 근처)에 수개월 머물다 1880년 서울로 돌아갔으며 李주교가 별세한 후 주교대리직을 맡게됐다.

이때가 안대동을 중심으로한 전교가 차츰 빛을 내기 시작할 때였다.

이후 두세 鄭신부, 조스 조신부(1885년) 라프르까드 羅신부(1887년~1888년 4월) 베르모델 張신부(1892년경) 모이세 조신부(1893년) 등이 안대동 또는 華山の 차돌박이 邊山 裴재(秀時) 금구 배재(梨時) 등을 함께 관할하며 전교에 힘썼다.

1894년 동학란 때 조신부가 상경도중 피살되고 1897년 전에 왔던 張신부가 江景, 龍安, 威悅 등 평야부로 진출하기위해 우선 「안대동」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 이곳 본당의 시초가 됐다.

1958년 威悅역전 瓦里에 본당이 신설되어 옮겨지게 됐지만, 함열본당이 완성될 때까지 과거의 본당 역할을 다한 곳이 안대동이었다.

## 교구소식

- 11월14일 참사회 의결사항, 추계사제총회 결정사항 알림 : ①90년도 신부 수계계획에 따라 본당 보좌신부를 파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좌발령예정본당-중앙제2보좌, 노송, 금암, 덕진, 효자, 오룡 ②페루 선교사를 위한 미사 및 2차헌금 실시-2차헌금 주일(12월10일 대림제2주일, 선교사를 위한 교구 사제단 합동미사-12월11일(월) 오후7시 전주 중앙성당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차헌금은 12월23일(토)까지 교구 관리국으로 보냅니다.
- 교구헌인강좌 : 12월17일(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결과 : 회장-정형식(바오로, 우석대) 부회장-차정민(도로테아, 원광대)
- 가톨릭 사회복지회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12월4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 회관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12월4일(월) 저녁7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회의실
- 평화동 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나눔의 찾집 : 12월10일 오전8시~오후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휴게실
- 테클라 성소자 모임 : 성바오로 딸 수도회(상바오로 서원2층) 오늘 오후2시부터~5시까지 고졸이상 27세 미만의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여성. 전화(전주)3-3398
- 좋은 영화 상영 「분노의 포도」 : 상영일-12월4일(월) 오후7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강당 대상-중·고 대학생 일반(어린이 입장불가) 회비-1,000원 문의-교구청 홍보국(85-0041)
- 축! 영명 : 3일(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고경훈 신부님
-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12월7일(목) 덕진 천주교회 강사-한연홍신부님(용인성당)
- 광주 가톨릭대학 지망자(수험생)을 위한 미사 : 12월 10일 오후 3시 가톨릭센터(회의실) 대상-성소자 전원 수험생 부모님

## 安大洞 聖堂

### 함열성당의 모체



## '찾습니다,

치명자산 성직자묘 우측 내림길로 20m 묘소에 40년전 사망하신 부친의 묘를 금년4,5,6월경에 그 누가 묘비가 없는 관계로 잘못 판단하고 이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금년 성묘를 못한 그의 가족이 이장해 가신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부디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 전주 교구청 홍보국 85-0041 안시문(자) 85-8266

## 전동성당부속 성심유치원 원아모집요항

모집인원 : 남녀원아90명선착순  
지원자격 : 1984년 3월 2일 - 1987년 3월 1일 사이탄생한 건강한 유아  
원서교부 : 89년 12월 1일부터  
원서접수 : 89년 12월 11일 - 30일까지  
원서접수처 : 성심유치원 사무실  
문의전화 : (유) 84-8347 (수) 82-9234  
요망사항 : 접수시 어린이와 함께 동반할 것

##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뱀 디포  
☎ 84-2628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기정(요셉)  
효자성당 앞  
☎ 82-6492

## 부인주단

주단·침구·훈수전문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 사원모집

당사는 전자부품 생산업체로서 성실한 생산직 여자사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 학력제한없음 만 16세이상 34세미만
2.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씩
3. 모집기간 : 12.4-13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문의바랍니다.

※농아 및 신체장애자 상용바람.

## 알에프하이텍

전주시 금암1동 1556-3  
☎ 5-3697

## 일분명상

그대가 한번도 마음의 혼란함을 겪어 보지 못했다면 그대는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의 비결은 하느님께 대한 욕망,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 언어나 애정의 선(線)보다는 훨씬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머튼

## 명동피부과의원